

KIA 2년만에 ‘가을야구’... 주말 광주가 들썩인다



KIA 타이거즈가 2년만에 가을야구에 진출하면서 ‘야구도시’ 광주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주말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야구팬들의 발길이 광주로 향하면서다. 열차와 고속버스 좌석이 빠르게 동나고 경기장 주변 숙박시설도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되는 등 야구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 ▶관련기사 15면

KIA는 17일 오후 2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LG트윈스와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5전 3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18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치른 뒤 20~21일 잠실구장으로 무대를 옮겨 3·4차전을 갖는다. 승부가 최종전까지 이어지면 23일 광주에서 5차전이 열린다. 특히 정규시즌에서 최근 LG를 상대로 마지

내일 준PO 앞두고 열차 50여편 매진·고속버스 동나
숙박업소 예약 일찌감치 마감...티켓·응원용품 ‘불티’

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쥔 만큼 팬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진 상태다.

두 팀이 포스트시즌에서 맞붙는 것은 2016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후 10년 만이다. KIA가 안방에서 열리는 1·2차전을 발판 삼아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기대감은 광주로 향하는 교통편 예약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15일 기준 17일 서울 용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KTX와 ITX, 무궁화호 등 열차 50여편은 오전 5시48분부터 오후 10시 55분까지 전 시간대 매진된 것으로 파악

됐다. 서울발 광주행 고속버스도 오전 11시 이전 운행편은 대부분 좌석이 동났다. 철도와 고속버스를 가리지 않고 광주행 좌석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역시 주요 시간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

귀경길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일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열차도 주요 시간대 좌석이 매진되면서 주말 왕복 교통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로 몰려드는 야구팬들의 발길은 숙박업계에도 반가운 특수로 이어지고 있다.

2026 신한 SOL KBO 준플레이오프			
1차전	10/17(토) 14:00	LG : KIA	
2차전	10/18(일) 14:00	LG : KIA	
3차전	10/20(화) 18:30	KIA : LG	
4차전	10/21(수) 18:30	KIA : LG	
5차전	10/22(목) 18:30	LG : KIA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을 비롯해 상무지구와 농성동 등 주요 지역 숙박업소에서는 오는 17~18일 객실 예약이 잇따라 마감되고 있다. 원정 관객들이 경기 일정에 맞춰 숙소까지 미리 확보하면서 예약 경쟁이 평소보다 일찍 시작된 것이다.

상무지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53)는 “평소에도 주말에는 손님이 많은 편이지만 이번에는 경기 날짜에 맞춰 예약이 일찍 몰렸다”며 “야구를 보러

광주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 숙박업소뿐 아니라 주변 음식점과 상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야구팬들의 관심은 입장권 예매와 응원용품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준플레이오프 입장권 예매 일정과 좌석별 시야, 예매 성공 요령 등을 공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예매 상황을 가정한 버튼을 누르는 연습 프로그램까지 등장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티켓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온라인 구인 게시판에는 입장권 예매를 대신해 줄 사람을 모집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일부 대리 예매 게시글에서는 10만~17만원의 대행료까지 제시하는 등 입장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구단 공식 티스토리에서도 포스트시즌 모자와 티셔츠, 응원봉, 깃발 등 각종 응

원용품이 잇따라 품절됐다. 원하는 상품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눈을 돌려 유니폼과 관련 상품을 찾고 있다.

경기장 주변 상권도 밀려들 관람객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챔피언스필드 인근 푸드트럭 행사에서는 판매와 매장 관리, 설치·철거 등을 담당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등 주말 특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 시즌 KIA는 홈경기에서 127만 8888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구단 역대 단일 시즌 최대 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정규시즌 내내 이어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경기장을 넘어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 티켓 예매에 성공했다는 야구팬 박형민씨(35)는 “2024년 한국시리즈 때처럼 이번에도 예매 경쟁이 치열하다”며 “남은 경기 또한 꼭 티켓팅에 성공해 야구장에서 가을야구 특유의 열기와 응원 분위기를 직접 즐기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홍지선 “반도체 산단 적기 제공... 교통망·정주여건도 개선”

〈국토부 장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부지 광주군공항 살피

전남광주, 기반시설 구축
기업 요구사항 반영 협력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국방부 장관에 이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광주 군공항을 찾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산단 부지 조성과 적기 공급을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은 탄약고 이전 예정지 조기 개발과 산단 후보지 확대를 요청해 조기 착공을 위한 부지 확보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5일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홍 장관의 방문은 지난 9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광주 군공항을 찾아 반도체 공장 조기 착공과 신속한 건설 의지를 밝힌 뒤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5일 오후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12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4일 현장 을 찾은 데 이어 국토부 장관까지 방문하 면서 정부 부처별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는 홍 장관과 민형배 시장, 공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광주 군공항에 주둔 중인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공군이 부대 이전으로 참여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팀에서 공항 시설과 부지 현황을 살펴보고, 우선 개발 부지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2면으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민형배 시장, 의대 추천 반발 서남권 시민 만나다
문애준 시의원 면담 요청 수용...구체적 일정은 언급 안 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립 의대 설립 후보대학 추천에 반발하는 서남권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천 과정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도 시민들의 비판을 책임지는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민 시장은 15일 통합특별시장의회 시정질문에서 문애준 의원이 서남권 시민들과의 만남을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면담 일정과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문 의원은 국립의대 관련 질의를 마친 뒤 민 시장에게 서남권 시민들을 향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민 시장은 “의과대학 설립을 그토록 염원했는데 불발에 그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싸우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가 겪어온 소외와 서남권

의 여러 취약성이 맞물리면서 지역민들의 상심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 구도가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성도 시민들의 비판을 책임지는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정성 문제가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시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면 계속 나무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기꺼이 책임지는 자세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남권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나아갈 방안을 찾고자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달라고 건의했고, 민 시장은 요청을 수용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